

치 사

우주 만물이 소생하는 향기로운 봄날에, “제9회 경기 북부 市사랑 자비나눔음악예술제”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기북부음악예술제는 매년 경기북부지역을 순회하며 그 지역에 살아 숨쉬는 선인들의 정신과 유무형의 문화를 주제로 선정하여,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의정부가 시로 승격된 50주년을 기념하는 첫 행사로, 백성들이 살 맛 나는 세상에 살기를 발원하며 치열한 구도 행각을 벌였던 “무학대사 일대기”를 마련했다 하니 참으로 뜻 깊은 일입니다.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랐던 무학대사의 서원처럼 현 시대의 음악은 인류를 소통하게 하고, 화합을 꿈꾸는 불교의 가치를 실현하는 뛰어난 방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음성공양이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을 녹이는 감로수가 되어 함께 노래하고 어울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행복과 평화의 야단법석을 준비하신 경기북부

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정수스님과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대홍스님을 비롯한 여러 대중 스님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오랜 시간 연습을 통해 이번 공연을 준비해 오신 경기북부불교연합합창단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2557년 5월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